

총선 D-9 호남 28개 지역구 각 당이 보는 판세

국민의당 '우세' 19·'경합' 8 더민주 '우세' 8·'경합' 8 곳

국민의당 "28곳 석권 가능"
 더민주 "최대 16곳 목표"
 새누리 이정현·정운천 기대

4·13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진입한 가운데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전남 표심 향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더민주가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점차 굳히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2·3·4·5면〉

더민주 28석의 호남 선거구 가운데 우세 지역 8곳, 경합 우세 및 경합이 8곳 등으로 최소 10석 최대 16석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우세 지역구로는 광주 광산 을(이웅섭) 1곳, 전남은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순천(노관규), 나주·화순(신정훈), 영암·무안·신안(서상석), 광양·곡성·구례(우윤근) 등 5곳, 전북은 전주 갑(김운태), 익산 갑(이춘석) 2곳을 꼽고 있다. 경합 우세 지역으로 광주 서 갑(송갑석), 북 을(이형석)과 전남 여수 갑(송대수), 해남·완도·진도(김영록) 등을 꼽았다.

국민의당은 호남 28개 선거구 가운데 순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경합 이상의 판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소한 20석 이상, 막판 바람만 더 불어준다면 호남 석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는 광산 을(권은희) 1곳만을 '경합 우세'로 분류하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우세'로 분류했다.

전남은 목포(박지원), 여수 갑(이웅주), 여수 을(주승용), 고흥·보성·장흥·강진(황주홍), 해남·완도·진도(윤영일), 영암·무안·신안(박준영) 등이, 전북은 전주 병(정동영), 군산(김관영), 익산 갑(이한수), 익산 을(조배숙), 정읍·고창(유성엽), 완주·진안·무주·장수(임정엽) 등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의 경합 우세 지역으로는 광양·구례·곡성(정인화), 담양·함평·장성·영광(강현욱), 나주·화순(송금주) 등 3곳을 꼽았다.

김재두 대변인은 "현재 판세로는 20석 이상은 물론이고,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호남 전 지역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광주 북 을 선거구를 제외

■ 각 당이 본 호남 28개 선거구 중반 판세

◆ 광주

지역구	더민주	국민의당
동남구갑	열세(최진)	우세(장병완)
동남구을	경합(이병훈)	우세(박주선)
서구갑	경합우세(송갑석)	우세(송기석)
서구을	경합열세(양항자)	우세(전정배)
북구갑	열세(정준호)	우세(김경진)
북구을	경합우세(이형석)	우세(최경환)
광산구갑	경합(이웅섭)	우세(김동철)
광산구을	우세(이웅섭)	경합우세(권은희)

◆ 전남

지역구	더민주	국민의당
목포	열세(조상기)	우세(박지원)
여수갑	경합우세(송대수)	우세(이웅주)
여수을	열세(백무현)	우세(주승용)
순천	우세(노관규)	미분석(구희승)
나주·화순	우세(신정훈)	경합우세(송금주)
광양·곡성·구례	우세(우윤근)	경합우세(정인화)
담양·함평·영광·장성	우세(이개호)	경합우세(강현욱)
고흥·보성·장흥·강진	열세(신문식)	우세(황주홍)
해남·완도·진도	경합우세(김영록)	우세(윤영일)
영암·무안·신안	우세(서상석)	우세(박준영)

◆ 전북

지역구	더민주	국민의당
전주갑	우세(김운태)	경합우세(김광수)
전주을	경합(최형재)	경합(장재환)
전주병	경합(김성주)	우세(정동영)
군산	열세(김윤태)	우세(김관영)
익산갑	우세(이춘석)	우세(이한수)
익산을	열세(한병도)	우세(조배숙)
정읍·고창	열세(하정열)	우세(유성엽)
남원·임실·순창	열세(박희승)	경합(이웅호)
김제·무안	열세(김춘진)	경합우세(김중회)
완주·진안·무주·장수	경합열세(안호영)	우세(임정엽)

※ 각 정당이 자체 또는 언론사 여론조사, 지역구 실사, 민심 동향 등을 종합해 각 지역구를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5개 척도로 판세를 분류한 것입니다. 각 정당의 분석인만큼 서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새누리당은 순천, 영암, 무안, 신안, 전주를 경합 열세로 분석

호남권(28개 선거구)



한 27곳에 후보를 냈지만 전북 전주 을(정운천), 전남 순천(이정현), 전남 영암·무안·신안(주영순)을 '경합 열세'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과 전주 을의 경우, 후보들의 지지세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일까지 10일이 남은 데다 접전 지역이 많아 아직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가 판세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은 국민의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민주의 '뒤집기' 시도와 국민의당의 '자키기'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주 서 갑과 광산 을, 전남의 광양·구례·곡성, 나주·화순 등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판세는 국민의당 우세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며 "더민주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광주에 이어 전남도 국민의당 강세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벚꽃 아래 음악분수... 운천저수지의 봄 2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주변에 만개한 벚꽃 아래로 음악분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후보 공약 '노인복지' '청년일자리' 최다

광주·전남 95명 분석

4·13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은 '노인복지'와 '부자증세',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광주역 개발',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한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과 '주52시간 칼퇴근법 제정', '부정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복지과 일자리 창출 공약 대부분이 차별성이 부족한데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2000명 규모 고객센터 유치

콜센터 1만명 시대 '성큼'

광주시가 고객센터 인력 1만명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고객센터 아웃소싱 기업인 ㈜유베이스와 고용인원 2000명 규모의 고객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했다.

광주일보가 3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총 95명의 후보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복지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노령기초연금 확대와 노인복지문화관 건립 등 어르신과 관련된 복지공약이 주를 이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무상보육·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부자증세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이병훈(광주 동남 을) 후보와 국민의당 박주선(동남 을) 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및 거점경로당 확대 추진, 간병서비스 의무화,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적용 등 어르신의 노후 생활

과 직접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

민중연합당 장세레나(북구 갑) 후보는 무상보육 국가책임제와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정의당 장화동(서구 갑) 후보는 대기업 법안제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인호(북구 을) 후보는 광주 지하철 2호선 조기착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왔고, 국민의당 이용주(여수 갑) 후보는 돌산 우두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법원·검찰청 지원·지정 유치 등을 내걸었다. 더민주 노관규(순천) 후보는 순천만~국가정원 간 동천 주변습지 복원 및 순천종합스포츠파크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공약과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공약 대부분이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l (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8.8km/l),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